

요약문

• 등록일자 : 2020-04-16 • 업데이트 : 2025-03-27 • 조회 : 5580 • 정보신청 : 102

요약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요충증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됩니다.
- 전파는 감염자의 손, 옷, 침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에서 감염률이 높습니다.
- 주요 증상은 항문 주위 가려움, 피부염, 복통, 불면증 등이 있으며, 스카치테이프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목욕, 침구 및 속옷 소독이 중요하며, 감염 발생 시 집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료는 알벤다졸 400mg을 1회 복용 후 20일 간격으로 3회 반복하며, 가족 및 집단 구성원이 함께 치료받아야 합니다.

개요-신고 대상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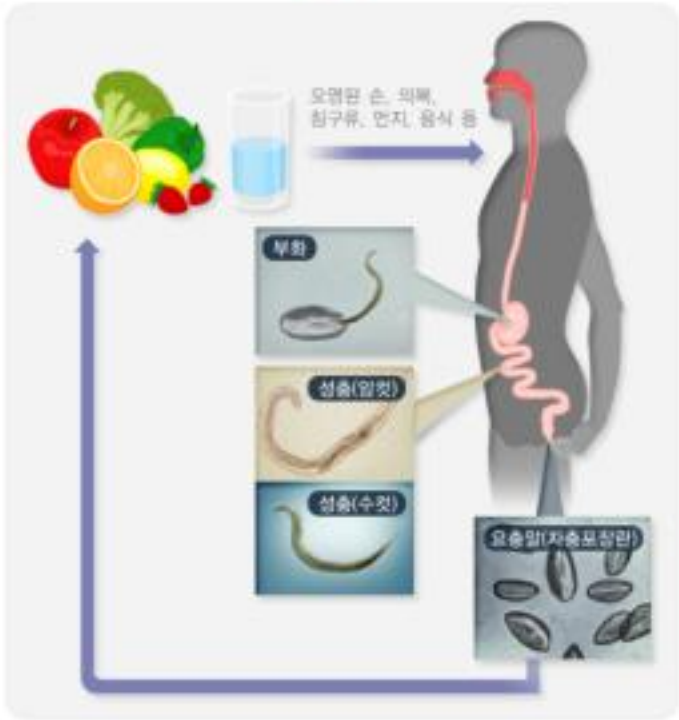
1. 신고범위 : 환자
2.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3.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항문주위도말)에서 총란 및 총체 확인
 - 항문주위와 여성의 질에서 총체 확인
4.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5. 신고 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가생충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로 팩스 또는 웹(<http://is.kdca.go.kr>)의 방법으로 신고

개요-원인 및 감염경로

전파경로

요충의 총란은 항문 주위에 산란된 후 수 시간 내에 감염형 총란(자충포낭란)이 되어 매우 강한 전파력을 갖습니다. 일차적으로 항문 주위를 긁은 손에 총란이 묻어 전파가 시작되고, 일부는 옷이나 침구류 등에 묻어 있다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림 요충》



역학 및 통계

국내현황

세계적으로 정확한 감염자 수는 조사되지 않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전 국민 감염률은 높게는 64.1%에서 낮게는 0.9%까지 결과값의 변이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률 보이고 있습니다. 요충증은 2020년 법정감염병(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하고 있으며, 연간 128~445건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신고건수 (표본감시체계)	331 건	289 건	301 건	182 건	128 건	445 건	218 건	225 건	253 건

*:요충증 ::2011년(제5군 감염병 /표본감시) → 2020년(제4급 감염병/표본감시)
* 출처 ::질병관리본부 (2020). 감염병포털. <http://www.kdca.go.kr/npt/biz/npp/ss/parasitosisStatisticsMain.do>

증상

요충이 항문 주위에 알을 낳으면 짧은 시간 내에 항문주위 가려움증, 피부 발적, 종창, 습진, 피부염이 발생하며, 2차적인 세균감염, 복통, 설사, 아노증, 불안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충이 막창자에 기생하다가 충수염이 생기기도 하며, 여아의 경우 질염 및 육아종 등의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단 및 검사

요충 감염의 진단은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항문주위에 붙어 있는 총란이나 총체를 채취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요충이 항문 주위에 알을 낳으므로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에 항문 부위에서 검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및 예방접종

예방

유치원, 학교에서 요충감염이 확인된 경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집단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은 손톱을 잘 깎고 자주 손을 씻고 목욕을 하며, 속옷 및 침구를 삶아 빨거나 햇볕에 노출시켜 일광소독을 실시합니다. 침실, 거실, 놀이방, 교실 등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여 감염원인 총란을 제거하는 것이 전파를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치료-약물 치료

요충의 치료는 알벤다졸 400 mg을 1회 투여하여 90~100%의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재감염을 고려하여 2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 투여해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총란은 저항력이 있고 전파력이 강하여 재감염되기 쉬우므로, 감염자 가족 전원 또는 단체생활의 구성원 전원이 동시에 치료 받아야 합니다.

대상별 맞춤 정보

환자 및 접촉자관리

요충 감염 환자는 격리를 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파 경로는 신체 접촉 후 묻은 감염형 총란을 경구로 섭취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나 주변물체와 접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거나 의복을 세탁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20). 감염병포털. <https://dportal.kdca.go.kr/pot/index.do>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